

통일 칼럼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북한을 향해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그는 “남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작기”라고 했다. 이어 “남북은 원수가 아니다.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라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북, 그리고 미국 대화와 국제 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이 대통령의 대북 유화책을 “허망한 개꿈”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영진 실타래일수록 안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면서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정복규

논설위원

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거부에도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남북 경제협력 재개를 통한 공동 성장을 제안했다. 이번 경축사는 북한이 민감해하는 비핵화 방안이나 과거 문제인 정부의 첫 광복절 메시지에 담긴 ‘한반도 운전자론’과 같은 적극적인 대북 구상 대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한 불신 해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

북한의 효용이 없더라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무인기 등의 비행을 금지하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먼저 복원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 언급처럼 한국군만 군사적 완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만 무장해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9·19 군사합의 복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 대통령 언급처럼 한국군만 군사적 완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만 무장해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통일 대원칙을 확인한 건 의미가 적지 않다. 최근 북한의 노선 급변함으로 우리 내부에서도 일부 동조하는 분위기가 민족 동질성이나 민족적 소명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경축사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1945년 8·15 광복 직후 미국·소련의 한반도 분할 점령으로 남북 분단이 초래된 지 딱 80년이 된 올해, 한 국민의 뇌리에서 ‘통일=공동체의 신념’이란 인식은 희미해지고 있다.

통일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관점이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객관적 현

실을 받아들이고 남한과 북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주장마저 진보 진영에서 나왔다. 반공은 ‘국시(國忌·국가 아님)’였고, 한국전쟁 이후 북한 정권이 차지한 휴전선 이북 지역을 힘으로 되찾아야 한다는 인식도 짙었다. 5·16 군사 쿠데타 후 개정된 1962년 헌법에도 남북통일 뒤의 국회의원 수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국토 수복’이란 표현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이 표현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등 대화 국면이 조성되며 70년대 이후 고쳐진 헌법에선 사라졌다.

그러나 남북 대결 관점에서 통일을 민족적 과제로 보는 국민 시각은 여전히 강하다. 공산주의 체제에 승리해야 한다는 뜻인 ‘승공(勝共)’이란 단어도 사회 곳곳에서 통용됐다.

최근에는 ‘통일에 대한 회의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에서 통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통일 지향’을 작금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라며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설

제2의 전성기 K-조선

K-조선이 친환경 선박 등의 수주 증가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3년치 일감을 쌓여 이를 소화할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이를 수행할 숙련공이 부족하다.

즉시 생산 현장에 투입할 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생산 차질까지 걱정하고 있다. 연구개발(R&D) 인력도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에 크게 뒤지고 있다.

경기 위축 상황에서도 조선업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수주와 이에 따른 선박 생산 증가의 영향이 크다. 조선업계는 지난해 연간 1.127만CGT(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의 선박을 건조했다.

올해는 액화천연가스(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건조량이 1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시급한 것은 생산 인력

확보다. 조선업이 지속 성장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숙련된 생산 인력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조선업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는 것은 △고령화로 인한 퇴직 증가 △신규 인력 유입 저조 △노동 강도 대비 낮은 임금 경쟁력 △하도급 구조로 인한 고용 불안정 등이 꼽힌다.

특히 조선업은 고강도 노동이 요구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 반도체, 배터리 등 타 산업에 비해 임금과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대기업 조선사의 평균 연봉이 8,000만원 안팎인데 비해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는 1억원을 넘었다. 하청 업체로 내려가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조선 협력업체의 평균 연봉이 4,000만원대인데 반해 비슷한 숙련도를 요구하는 반도체 및 자동차 협력업체의 경우 5,000만~7,000만원 수준이다.

노인회 전북연합회 한궁 바둑 장기대회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 연합회는 8월 20일 전북노인회관 3층 강당 등에서 제11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배 노인한궁대회 및 제15회 바둑·장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11월 5일부터 2일간 경기도 가평에서 열리는 제12회 전국 노인 건강대축제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선수 선발전을 겸하여 열렸다.

한궁은 남자부 1위 전주시지회, 2위 군산시지회, 3위 임실군지회, 여자부 1위 군산시지회, 2위 전주시지회, 3위 순창군지회가 차지했다.

바둑은 1위 순창군지회 박수복, 권경식, 2위 정읍시지회, 허성호, 나정길, 3위 임실군지회 이재학, 김성곤 선수가 차지했다.

장기는 1위 완주군지회 이창재, 2위 부안군지회 김현곤, 3위 순창군지회 김병환 선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한궁 남·여 단체 1위팀(각5명)과 2위팀(각2명)은 제12회 전국 노인건강 대축제에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된다.

김두봉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은 “승패를 떠나 우정을 나누는 귀한 화합의 장이 되었다”며 “한궁이나 바둑·장기 종목은 노년 세대에게 신체 건강은 물론 치매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에는 김두봉 연합회장, 김영구 자문위원장, 전영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노인위원장, 14개 시·군지회장, 안병춘 노인지도자대회회장, 김삼종 노인지도자대학회장, 정희종 세계한궁협회 사무총장, 배균섭 전북한궁협회장, 고환규 전북바둑협회 이사, 주경덕 전북장기협회 지회장과 선수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러시아 공습으로 피해 입고 집 떠나는 주민들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 공습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소지품을 챙겨 파괴된 집을 떠나고 있다.

풍선에 적힌 팔레스타인 지지 메시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 현장에 팔레스타인 지지 문구가 적힌 풍선들이 띄워져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